

# APT 거주자의 만족도 및 희망유형에 관한 연구

-L, D, K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artment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and Preference for the Future

-Centering around LDK-

趙	庸	希*
Cho	Yong	Hee
尹	在	雄**
Yoon	Jae	Woong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plan of apartments suitable for desired of residents in apartment in the future, by examining both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LDK (Living, Dining rooms and Kitchen) space and preference for LDK in the future with homemarkers residing in apartments.

The concrete purpose of this study is (1)to examine the condition of apartments actually used by these residents, (2)to analyes their satisfaction with the function of LDK space and factors effect on their satisfaction to areas, (3)to examine the pattern of LDK space desired by the residents in apartments and factors having an effect on the pattern by areas.

## I. 서론

인간은 그 존재이래로 항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해 왔다. 그중

에서도 인간의 제 1 차적인 환경인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하는 은신처로써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신분과 자아를 상징해주는 매개체로써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주거는 196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생활관습

\* 효성여대 가정관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효성여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등으로 그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그동안 절대적인 양적 부족에서 오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할수 있는 아파트를 출현시켰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아파트가 선호도나 공급량에 있어서 단독주택을 압도하게 되면서 서구식 주택평면형태의 일반화와 더불어 우리의 주생활양식은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APT의 대량공급으로 발생하는 획일화된 주거공간 구성은 거주자들의 다양한 주생활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Doxiadis는 인간은 전 생애 중 많은 시간을 주택에서 소비하므로 주거계획시 사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역설하였다. 오늘날의 주거양식이 점차 가장본위에서 가족본위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때(김정매, 1981) 주거내의 가족공동체 공간인 LDK공간계획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주거 공간구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이 합리성을 근

거로한 공간 구성체계에 치우치고 있다. 그러나 공간구성체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생활상을 반영하는 만족할만한 주거공간 창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주거내 LDK공간의 계획에 있어서는 가족전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볼때 가족들의 생활과 요구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K공간에 대한 가족의 만족도와 희망유형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아파트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평형별로 아파트 거주자들의

LDK공간 사용실태와 욕구를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의 APT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파트 거주자의 LDK공간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 2) LDK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 3) 아파트 거주자가 희망하는 LDK공간의 유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그 뜻을 정의한다.

### 1) LDK공간

주거공간중 거실(Living), 부엌(Kitchen), 식당(Dinning)으로 한정 짓는다.

(1) 독립형: 거실, 부엌, 식당공간을 모두 분리시켜 계획된 형으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2) DK형(Dining-Kitchen): 부엌과 식사공간을 일실로 하고 거실을 분리시켜 계획되는 형으로 넓이가 절약될 뿐아니라 주부의 가사노동을 간편하게 하도록 되어있다.

(3) LD형(Living-Dining): 식사공간과 거실을 하나의 공간에 두고 부엌을 독립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필요에 따라 식당 면적을 넓게 할 수도 있으며 공간의 융통성이 있다.

(4) LDK형(Living-Dining-Kitchen): 거실, 식당, 부엌을 하나의 공간으로 처리한 것으로 식사시의 단란요소를 거실공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기능성

LDK공간의 면적, 위치, 채광, 환기등 생활하는데 요구되는 정도를 말한다.

###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국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해석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조사대상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거의 식수준 및 단위 평수에서의 LDK공간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20평형, 30평형, 40평형로 구분하였다.

2) 아파트의 LDK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기능성으로 제한한다.

3) 조사대상 지역은 대구시 수성구, 달서구, 남구의 87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만으로 제한한다.

4)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일반적 성향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평형, 30평형, 40평형대의 APT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LDK공간의 이용실태와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및 희망하는 LDK유형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1) 일반사항 2) LDK공간의 사용실태 3) LDK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4) LDK공간의 희망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선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응답자들의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계수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중복문항을 사용하여 기능성에 대한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87년 이후 아파트 단지인 수성구, 달서구, 남구를 중심으로 총 400부를 배부하여 332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

문지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것과 성실성이 결여된 31부를 제외한 설문지의 91%에 해당하는 301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 < 표 1 > 조사개요

조사지역 및 대상	대구시 수성구, 달서구, 남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조사 시기	1992. 8. 5. ~ 1992. 8. 25. (21일간)
조사 방법	설문조사방법
조사 호수	20평형(81), 30평형(131), 40평형(89)

## III. 조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거 변인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주부의 연령,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 유무,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월평균 수입을 조사하였으며 그 분포는 <표 2>과 같다.

주부의 연령은 30대(31.9%)와 40대(44.2%)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부의 교육 정도는 대졸(42.9%), 고졸(42.5%)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냈으며 주부의 직업유무에 있어서 23.6%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76.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 2. 주공간 사용실태

주택내에서 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행위를 주생활 행위라 한다. 주택내 장소별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주생활의 내용, 실사용에 따른 실의 기능 분화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각 실의 기능은 실과 행위와의 대응을 통해서 수용되는 생활행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 표 2 > 독립변인의 빈도와 분포

N=301

일인적 특성		F	*
주부의 연령	30세 미만	29	9.6
	30-39세 미만	96	31.9
	40-49세 미만	133	44.2
	50세 이상	43	14.3
	계	301	100
가족 수	3명 이하	61	20.3
	5명 이하	192	63.8
	7명 이하	48	15.9
계	301	100	
가정생활 주기	형성기	80	26.5
	확대기	163	54.1
	축소기	58	19.3
	계	301	100
주부의 학력	중졸 이하	36	12
	고졸	128	42.5
	대졸	129	42.9
	대학원	8	2.7
계	301	100	
일평균 수입	60만원 미만	21	7.0
	61-80만원	58	19.3
	81-100만원	63	20.9
	101-120만원	58	19.3
	120-150만원	61	20.3
	150만원 이상	39	13.0
계	301	100	
주부의 직업	유무	71	23.6
		230	76.4
	계	301	100
공간유형	L.D.K. 독립형	74	24.6
	DK, L 형	165	54.8
	LD, K 형	28	9.3
	LDK 형	35	11.6
	계	301	100
주택 소유형태	자택	250	83.1
	건설세	46	15.3
	월세	5	1.6
계	301	100	
주택면적	20평형	81	26.9
	30평형	131	43.5
	40평형	89	29.5
계	301	100	
거주기간	1년	96	31.9
	2년	79	26.2
	3년	39	13.0
	4년	13	4.3
	5년	74	24.5
	계	301	100

< 표 6 > 식당에서 식사않는 이유

N = 130

이유	빈도		이유	빈도	
	N	*		N	*
취식이 편해서	63	48.5	너무 없어서	5	3.83
식당이 좋아서	32	24.6	난방상의 문제	12	9.23
분위기가 나쁨	7	5.4	기타	11	8.45

< 표 3 > 각 공간 이용실태

N = 301

실사용		공간		인방	거실	부엌	식당
개인생활	취침	어플		275(91.4)	43(14.3)	1(0.3)	3(1.0)
		겨울		296(98.3)	3(1.0)		4(1.3)
	독류취	서식	151(50.2)	162(53.8)	3(1.0)	16(5.3)	
		미미	158(52.5)	179(59.5)	4(1.3)	5(1.7)	
공동생활	가단란	T.V 시청	어플	98(32.6)	226(75.1)	3(1.0)	4(1.3)
		겨울	159(52.8)	177(58.8)	3(1.0)	2(0.7)	
	내식사	차와 후식	29(9.6)	193(64.1)	17(5.6)	147(48.8)	
		담소	76(25.2)	259(86)	3(1.0)	24(8.0)	
	외식사	어플	47(15.6)	52(17.3)	16(5.3)	227(75.4)	
		겨울	91(30.2)	29(9.6)	15(5.0)	212(70.4)	
	가족외	점대	예우할 손님	152(50.5)	181(60.1)	2(7.0)	17(5.6)
			친한 친구	126(41.9)	190(63.1)	5(1.7)	42(14.0)
		식사	자녀 친구	26(8.6)	172(57.1)	7(2.3)	83(27.6)
			예우할 손님 식사	137(45.5)	133(37.5)	5(1.7)	97(32.2)
가사작업		자녀 돌보기	77(25.6)	154(51.2)	8(2.7)	8(2.7)	
		다림질	118(39.2)	97(32.2)	5(1.7)	5(1.7)	
		옷 손질	126(41.9)	84(27.9)	4(1.3)	4(1.3)	
		가계부 정리	140(46.5)	86(28.6)	16(5.3)	106(35.9)	
		식물 다듬기	1(0.3)	13(4.3)	229(76.1)	56(18.6)	

< 표 4 > 거실 사용 시간

N = 301

시간	빈도		시간	빈도	
	N	*		N	*
시간 미만	62	20.6	2-3 시간	80	26.6
1-2 시간	106	35.2	3시간 이상	53	17.6

< 표 5 > 식당에서 식사하는 정도

N = 301

영위	빈도		어플		겨울	
	N	*	N	*	N	*
언제나 식당에서 식사	181	60.1	166	55.1		
때때로 인방이나 다른방에서 식사	80	26.6	83	27.6		
식당과 타실과 식사횟수가 비슷	17	5.6	26	8.6		
거의 식사 않음	20	6.6	23	7.6		
기타	3	1.0	2	0.7		

< 표 7 > 식사외에 식탁에서 하는 일

N = 301

행위	빈도		행위	빈도	
	N	*		N	*
음식물을 다듬거나 정리	195	64.8	아이들의 공부	27	9.0
다과	83	27.6	식사의에는 필요 사용안함	65	21.6
독서, 가계부 기입	72	23.9	기타	2	0.7

조성희(1987)의 주생활 행위의 분류를 보면 크게 개인 행위, 가족 상호교류 행위, 접대행위, 가사작업 행위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행위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생활 행위 - 공부, 사색, 휴식, 취미생활 등 개인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며 신문구독, 취침 등과 같이 행위 성격상 개인생활이지만 다른 행위와 함께 실을 겸용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 가족 상호교류 행위 - 가족 공동의 공적, 사회적 성격을 지닌 행위로 가족의 담소, 휴식, 자녀와의 대화, 가족 식사, T.V 시청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행하는 행위이다.

· 접객행위 - 친한 친구의 접대 및 식사, 손님접대 및 식사 등과 같이 가족 공동행위 중 공적, 사회적 성격을 지닌 가족외적인 행위이다.

· 가사작업 행위 - 설거지, 조리, 다림질, 옷손질 등과 같이 주로 주부가 하는 가사노동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별로 장소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LDK공간이 아닌데도 안방을 조사한 것은 설문 대상자들인 주부의 실사용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조사 빈도와 백분율은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도록하여 각 행위에 대한 실 사용빈도는 최고 100%이다. 조사결과는 <표 3>와 같다.

(1) 개인 생활 행위 - 취침은 98.3% 이상이 방에서 이루어지며 독서는 거실(53.8%)과 안방(50.2%)으로 나타났다. 휴식은 거실(59.5%)과 안방(52.5%), 취미는 거실(68.8%), 식당(14.3%), 안방(12.0%)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생활은 안방과 거실에서 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 상호교류 - 단란과 식사 행위를 보는데 단란에는 T.V시청, 차와 후식, 담소 등으로 T.V시청은 여름에 거실(75.1%), 안방(32.6%)으로 거실의 이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겨울은 안방(52.5%), 거실(58.8%)로 나타나 겨울에 안방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차와 후식은 거실(64.1%), 식당(48.8%)에서 이루어지며 가족간의 담소는 거실(86%)과 안방(25.2%)에서 이루어진다. 안방은 사실로서의 공간분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일 가족이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1~2시간이 35.2%, 2~3시간이 26.6%, 1시간 미만이 20.6%, 3시간 이상이 17.6%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식당은 입식화가 69.1%로 나타났으며 식사는 여름(75.4%)과 겨울(70.4%)로 각각 나타났다.

언제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55.1%로 나타나 식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는 <표 5>와 같다.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는 이유는 좌식이 편해서(83.4%), 식당이 좁아서(42.4%)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표 6>와 같다.

식사이외에 식탁에서 하는 일은 음식물을 다듬거나 정리(64.8%), 다과(27.6%), 독서·가계부 기입(23.9%)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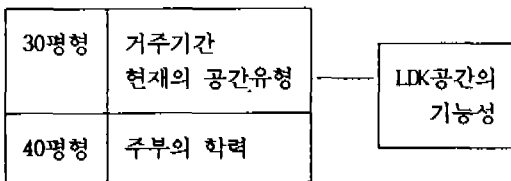
70년대말과 80년대 초의 연구에 따르면 거실이나 안방을 식사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식침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많다. 그러나 김린(1976)의 연구에서는 93.9%가 식사공간을 이용하여 식침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것은 표집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접객행위 - 예우할 손님인 경우는 거실(60.1%)과 안방(50.5%)이고 친한 친구는 거실(63.1%)과 안방(41.9%), 자녀 친구는 주로 자녀의 방을 이용하나 거실(57.1%)과 식당(27.6%)으로 나타났으며, 예우할 손님인 식사는 안방(45.5%), 거실(37.5%), 식당(32.2%)순으로 나타났으며 식당에서 식사대접을 안하는 이유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성희(1987)는 아파트는 부엌을 가사노동행위의 장소뿐만 아니라 가족단란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고 주침실보다 거실이 중심장소가 된다. 또 식사와 가족 단란 등의 행위가 거실과 부엌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4) 가사작업 - 자녀들보기 (거실 51.2%), 다림질(안방 39.2%, 거실 32.2%), 옷손질(안방 41.9%, 거실 27.9%)로 나타났다. 거실은 서구의 응접실과 가족실뿐만 아니라 가사작업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가계부 정리는 안방(46.5%), 식당(35.9%), 거실(28.6%)순으로 나타났고 부엌은 식품 다듬기(76.1%)와 식사준비를 위한 취사(90.0%)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주로 음식 준비를 하는 곳으로 이용된다.

### 3. LDK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그림 1> 독립변인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의 검증결과 도식

LDK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각 독립

립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8, 표 9, 표 10>와 같으며 그 결과 도식은 <그림 1>과 같다.

LDK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20평일때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30, 40평에 비해 매우 낮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 30평형은 거주기간과 현재의 공간유형을 40평형에서는 주부의 학력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그외의 변인들과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최대만족은 40평형일때 가정생활주기의 확대기(3.917)와 주부의 학력이 대졸이상(3.882)일때이며, 최저는 30평형에 거주기간 4년이상으로 나타났다.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변인은 30평형일때 현재의 공간유형으로 0.1%의 유의성을 나타내며 독립형일 경우 만족도가 높고 거주기간은 5%의 유의성을 나타내며 기간이 짧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40평형에서는 주부의 학력이 5%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능성에 대한 만족점수는 평수가 넓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외의 변인들과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Caplow(1948)는 주택의 크기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Western(1974) 역시 아파트의 크기는 아파트거주자의 주거만족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택평수가 커짐에 따라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따라서 LDK공간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표 8 > 20평형의 독립변인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의 F-test

N=301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	F	DUNCAN'S
기	주부의 연령	39세 이하	44	3.523	.09	
		40-49세	30	3.467		
		50세 이상	7	3.464		
생	가정생활주기	형성기	29	3.543	.44	
		확대기	24	3.542		
		축소기	28	3.411		
에	주부의 학력	고졸 이하	52	3.505	.02	
		대졸 이상	29	3.483		
		월평균 수입	60만원 미만	11		
60-100만원	39	3.500				
100만원 이상	31	3.419				
한	주부의 직업	유무	28	3.384	1.53	
		53	3.557			
만	거주기간	4년 미만	43	3.552	0.78	
		4년 이상	38	3.434		
족	공간유형	독립형	12	3.354	.80	
		L-DK형	69	3.522		
도	주택소유상태	자택	58	3.539	1.00	
		23	3.391			

1) Duncan's의 값은 문자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2)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표 10 > 40평형의 독립변인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의 F-test

N=301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	F	DUNCAN'S
기	주부의 연령	39세 이하	29	3.828	.23	
		40-49세	44	3.734		
		50세 이상	16	3.766		
생	가정생활주기	형성기	20	3.737	.78	
		확대기	18	3.917		
		축소기	51	3.735		
에	주부의 학력	고졸 이하	36	3.611	5.56*	B A
		대졸 이상	53	3.882		
대	월평균 수입	60만원 미만	22	3.795	.45	
		60-100만원	67	3.795		
		100만원 이상	67	3.795		
한	주부의 직업	유무	14	3.763	.01	
		70	3.775			
만	거주기간	4년 미만	70	3.789	.31	
		4년 이상	19	3.711		
족	공간유형	독립형	19	3.829	.26	
		L-DK형	70	3.757		
도	주택소유상태	자택	85	3.782	.62	
		4	3.563			

1) Duncan's의 값은 문자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2)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표 9 > 30평형의 독립변인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의 F-test

N=301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	F	DUNCAN'S
기	주부의 연령	39세 이하	52	3.611	.19	
		40-49세	59	3.581		
		50세 이상	20	3.513		
생	가정생활주기	형성기	31	3.605	1.39	
		확대기	45	3.683		
		축소기	55	3.486		
에	주부의 학력	고졸 이하	76	3.584	.02	
		대졸 이상	55	3.573		
		월평균 수입	60만원 미만	11		
60-100만원	60	3.558				
100만원 이상	60	3.658				
한	주부의 직업	유무	24	3.427	2.00	
		107	3.617			
만	거주기간	4년 미만	102	3.642	4.82*	A B
		4년 이상	29	3.371		
족	공간유형	독립형	43	3.843	13.45***	A B
		L-DK형	88	3.455		
도	주택소유상태	자택	107	3.549	1.80	
		24	3.729			

1) Duncan's의 값은 문자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2)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4. LDK공간의 희망유형

20평형	주부의 연령 주부의 학력 가정생활주기 현재의 공간유형	LDK공간의 희망유형
30평형	현재의 공간유형	
40평형	현재의 공간유형	

< 그림 2 > 독립변인에 따른 LDK공간의 희망유형도식

LDK공간의 희망유형은 사회통계학적 변인, 주거변인들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1, 표 12, 표 13>와 같으며 그 결과 도식은 <그림 2>과 같다.

LDK공간의 희망유형은 20평은 주부의 연

< 표 11 > 20평형의 독립 변인에 따른 희망유형

N=301

독립변인	주거공간의 유형		독립형	D-K형	L-D형	L-D-K형		
	F	N	F	N	F	N		
주부의 연령	39세 이하	21	25.93	18	22.22	3	3.7	
	40-49세	4	4.94	19	23.46	1	1.23	
	50세 이상	1	1.23	5	6.17	1	1.23	
연령	계	26	32.1	42	51.85	5	6.17	
χ² = 16.190*							2	2.47
가정생활주기	형성기	18	20.22	7	8.64	2	2.47	
	확대기	5	6.17	17	20.99	1	1.23	
	축소기	3	3.7	18	22.22	2	2.47	
주기	계	26	32.1	42	51.85	5	6.17	
χ² = 23.656**							6	7.4
주부의 학력	고졸 이하	10	12.35	33	40.74	3	3.7	
	대졸 이상	16	19.75	9	11.11	2	2.47	
학력	계	26	32.1	42	51.85	5	6.17	
χ² = 12.023*							6	7.4
월평균 수입	60만원 이하	2	2.47	6	7.41	1	1.23	
	60-100만원	13	16.06	21	25.93	3	3.7	
	101만원 이상	11	13.58	15	18.32	1	1.23	
수입	계	26	32.1	42	51.85	5	6.17	
χ² = 9.219							4	4.94
주부의 직업	유무	8	9.88	14	17.28	2	2.47	
	계	18	22.22	28	34.57	3	3.7	
직업	계	26	32.1	42	51.85	5	6.17	
χ² = 2.365							4	4.94
거주기간	3년 이하	16	19.75	19	23.46	4	4.94	
	4년 이상	10	12.35	23	28.40	1	1.23	
기간	계	26	32.1	42	51.85	5	6.17	
χ² = 4.417							0	0
공간유형	독립형	10	12.35	1	1.23	0	0	
	L-D-K형	16	19.75	41	50.62	4	4.94	
유형	계	26	32.1	42	51.85	5	6.17	
χ² = 18.163***							8	9.88
주거소유형태	지세	14	17.28	35	43.21	3	3.7	
	소유	12	14.81	7	8.64	2	2.47	
형태	계	26	32.1	42	51.85	5	6.17	
χ² = 7.682							6	7.4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표 12 > 30평형의 독립 변인에 따른 희망유형

N=301

독립변인	주거공간의 유형		독립형	D-K형	L-D형	L-D-K형		
	F	N	F	N	F	N		
주부의 연령	39세 이하	28	21.37	13	12.98	2	1.53	
	40-49세	29	22.14	19	14.5	5	3.82	
	50세 이상	9	6.87	6	4.58	4	3.05	
연령	계	66	50.38	42	32.06	11	8.4	
χ² = 3.235							5	3.82
가정생활주기	형성기	15	11.45	12	9.16	1	.76	
	확대기	23	17.56	15	11.45	3	2.29	
	축소기	28	21.37	15	11.45	7	5.34	
주기	계	66	50.38	42	32.06	11	8.4	
χ² = 3.285							4	3.05
주부의 학력	고졸 이하	40	30.53	21	16.03	9	6.87	
	대졸 이상	26	19.85	21	16.03	2	1.53	
학력	계	66	50.38	42	32.06	11	8.4	
χ² = 4.185							6	4.58
월평균 수입	60만원 이하	5	3.82	3	2.29	1	.76	
	60-100만원	33	25.19	21	12.98	2	1.53	
	101만원 이상	28	21.37	22	16.79	8	6.11	
수입	계	66	50.38	42	32.06	11	8.4	
χ² = 9.129							2	1.53
주부의 직업	유무	12	9.16	8	6.11	3	2.29	
	계	54	41.22	34	25.95	8	6.11	
직업	계	66	50.38	42	32.06	11	8.4	
χ² = 1.405							11	8.4
거주기간	3년 이하	50	38.17	32	24.43	8	6.11	
	4년 이상	16	12.21	10	7.63	3	2.29	
기간	계	66	50.38	42	32.06	11	8.4	
χ² = 3.818							0	0
공간유형	독립형	37	28.24	3	2.29	0	0	
	L-D-K형	29	22.14	39	29.77	11	8.4	
유형	계	66	50.38	42	32.06	11	8.4	
χ² = 34.432***							3	2.29
주거소유형태	지세	53	40.46	36	27.48	9	6.87	
	소유	13	9.92	6	4.58	2	1.53	
형태	계	66	50.38	42	32.06	11	8.4	
χ² = .888							3	2.29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령,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학력, 현재의 공간유형일때 30평은 현재의 공간유형 40평은 현재의 공간유형이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났고, 그외의 변인들과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0, 30평은 현재의 공간유형이 0.1%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이며 가장 희망하는 유형은 20평형은 주부의 연령, 주부의 학력이 5%의 유의성을 나타내며 가정생활주기는 1%,

현재의 공간유형은 0.1%의 유의성을 나타냈다. 30평은 현재의 공간유형이 0.1%의 유의성을 나타내며 40평은 현재의 공간유형이 5%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20평은 51%가 DK형을 희망하고 30, 40평은 독립형을 각각 50.38%와 52.81%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결(1982)의 연구에서는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독립된 식사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수는 상관성이 없었다. 안 영배의 25명에는 LD형이 바람직하다고하는 연구결과에 적용된다고 하겠다.

Norcross(1973)의 연구에서는 상이한 가족상황과 지역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독립된 식사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cross의 이론은 30, 40명에는 적용되나 20명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 표 13 > 40명형의 독립 변인에 따른 희망유형

독립변인		주거공간의 유형		D-K 형		L-D 형		L-D-K 형	
		F	n	F	n	F	n	F	n
주부의 연령	39세 이하	16	17.98	11	12.36	2	2.25	0	
	40-49세	26	29.21	12	13.48	6	5.62	1	1.12
	50세 이상	5	5.62	7	7.87	2	2.25	2	2.25
계		47	52.81	30	33.71	9	10.11	3	3.37
		$\chi^2 = 8.486$							
가정생활주기	형성기	14	15.73	6	6.74	0		0	
	확대기	8	8.99	9	8.99	2	2.25	0	
	축소기	25	28.09	16	17.98	7	7.87	3	3.37
계		47	52.81	30	33.71	9	10.11	3	3.37
		$\chi^2 = 7.21$							
주부의 학력	고졸 이하	21	23.6	10	11.24	3	3.37	2	2.25
	대졸 이상	26	29.21	20	22.47	6	6.74	1	1.12
	계	47	52.81	30	33.71	9	10.11	3	3.37
		$\chi^2 = 2.025$							
월평균 수입	80만원 이하	12	13.48	7	7.87	2	2.25	1	1.12
	80-100만원	35	39.33	23	25.84	7	7.87	2	2.25
	100만원 이상	0		0		0		0	
계		47	52.81	30	33.71	9	10.11	3	3.37
		$\chi^2 = .197$							
주부의 직업	무주	11	12.36	7	7.87	0		1	1.12
	주	36	40.45	23	25.84	9	10.11	2	2.25
	계	47	52.81	30	33.71	9	10.11	3	3.37
		$\chi^2 = 2.688$							
거주기간	3년 이하	40	44.94	21	23.6	7	7.87	2	2.25
	4년 이상	7	7.87	9	10.11	2	2.25	1	1.12
	계	47	52.81	30	33.71	9	10.11	3	3.37
		$\chi^2 = 2.764$							
공간유형	독립형	13	14.61	4	4.49	0		2	2.25
	L-DK형	34	38.2	26	29.21	9	10.11	1	1.12
	계	47	52.81	30	33.71	9	10.11	3	3.37
		$\chi^2 = 8.375^*$							
주석소유형태	자석	44	49.44	29	32.58	9	10.11	3	3.37
	세석	3	3.37	1	1.12	0		0	
	계	47	52.81	30	33.71	9	10.11	3	3.37
		$\chi^2 = 1.049$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IV.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공간 사용실태 거실은 독서, 취미, 휴식의 개인 생활 행위와 가족 내의 단란, 접객행위 등이 이루어지며, 부엌은 식사준비를 위한 행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당은 식사행위만이 주로 이루어져서 각 실의 융통성있는 공간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2) LDK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명형의 경우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30명형과 40명형에 비해 매우 낮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 30명형은 거주기간(p<0.05)과 현재의 공간유형(p<0.001)을, 40명형에서는 주부의 학력(p<0.05)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그 외의 변인들과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아파트 거주자가 희망하는 LDK공간의 유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명형에서 주부의 연령(p<0.05), 주부의 학력(p<0.05), 현재의 공간유형(p<0.001), 가정생활주기(P<0.01), 30명형에서 현재의 공간유형(p<0.001)과 40명형에서 현재의 공간유형(p<0.05)이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그외의 변인들과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희망유형으로는 20명형일 때 DK형(51.85%)을 희망하고 30명형과 40명형은 독립형을 각각 50.38%, 52.81%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명형과 30명형과 40명형일때 차이가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김 걸, 집합주거에서 거실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1982.
2. 김 린, 아파트의 실태와 아파트 주민의 주거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76.
3. 김정매, 주택의 가사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1.
4. 안영배, 최근의 아파트 설계에 대한 조사분석, 대한건축학회지, 제 23권 90

호, 1979.10.

5.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87.
6. Caplow, T. Home ownership and preferences in a Mineapolis samp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3. 1948 : 725-730. Cuter, V.F. Personal and Family Values in the Choce of a Home.
7. Doxiadis Norma L. Newmark, & Patricia J. Thompson, Self, Space & Shelter: an Introduction to Housing, Canfield Press, 1977, P 424.